

‘밥’과 관련된 한국어 속담 분석

강우순 (경희대학교)

An Analysis of Korean Proverbs related with *pap* ‘rice’ Woosoon Kang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Korean proverbs with *pap* ‘ri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community. I examine to analyze the data under the various frameworks: Grice, Lakoff and Langacker. Proverbs use the contrast in order to focus the speaker’s intention and to get the convince from hearers. I limited to analyze coordinate sentences since these distinctively show the contrast and the relation. In terms of the contrast and the relation, the semantic interpretations of *pap* can be easily taken. These semantic interpretations are classified under the Lakoff’s metaphors.

1. 서론

속담은 그 나라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공통점도 찾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다.¹⁾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생활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밥’과 관련된 속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밥’과 관련된 속담을 Grice, Lakoff, Langacker의 틀 내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것의 장단점을 지적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대조’라는 도구를 사용해 속담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왜 ‘대조’라는 도구가 사용되어 지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사용해서 밥속담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하는 자료는 특히 대조가 두드러지는 등위문에 한정하기로 한다. 대상 자료는 원영섭 (1995)에서 ‘밥’과 관련된 163개의 속담 중 접속문 63개를 분석하였다.

‘대조’를 통해 ‘밥’의 의미적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 의미해석을 Lakoff의 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밥속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와 아울러 ‘밥’에 대한 우리의 인지적 의미 해석을 더욱더 잘 나타낼 수 있으리라 본다.

2. 이론의 여러 가지 분석

이 장에서는 Grice, Lakoff, Langacker 등의 이론에서 속담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2.1. Grice (1975)

Charteris-Black (1995)에 언급했듯이 속담은 Grice의 협동 원리 (Cooperative principle)를 잘 지킨다. 즉 속담은 4가지 원칙을 잘 지킨다: 양의 원칙, 질의 원칙, 태도의 원칙, 관계의 원칙 등이다.²⁾ 양의 원칙으로 본다면 속담은 간단하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질의 원칙으로 보자 면 속담은 화자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나타내고 전통적인 지혜의 형태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속담에 나타난 명제의 진리치는 본래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화자의 주제와 목적에 따

1) 원영섭 (1995), Collis (1996)에서 속담에 대한 유사한 정의를 볼 수 있다.

2) 그것들은 Maxims of Quantity, Quality, Manner, and Relation이다.

라 달라진다. 태도의 원칙으로 보자면, 속담은 간단 명료하며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속담은 자주 은유나 유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담화와의 관계를 흐리게 할 수가 있다.

또한 Brown & Levinson (1978)은 공손의 모형 안에서 속담을 관찰하였다. 속담을 사용하는 동기 가운데는 청자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따라서 속담 중 많은 것은 화용 이론에서 보자면 명령문으로 많이 쓰여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속담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자에게 간접적이지만 강하게 화자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있다. 속담은 조상의 지혜와 전통에 바탕을 두어서 화자에게 더 강하게 접근하면서도 단순히 명령과는 다른 공손의 형태로 지킨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화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2.2. Lakoff (1980)

Lakoff는 모든 언어 현상을 은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속담도 은유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Lakoff에서는 구체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여행이다 (Love is a journey)와 같은 은유이다. 이 논문에서는 '밥'에 대한 속담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밥'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를 살펴보고, '대조'를 통해 속담을 분석한 후 더 자세한 의미 해석을 하도록 하겠다.

한국어에서 '밥'은 긍정적이다. '밥'은 먹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실이 될 수도 있다. Lakoff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은유라고 가정하고 있다.

2.3. Langacker (1995)

'밥'에 대한 어휘분석은 신현숙 (1997)에서 시도되어진 바 있다. Langacker의 기본 개념은 어휘에는 기본 의미가 있고 그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밥'에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밥'의 기본의미가 사람이 될 수도 어떤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대조와 관계

3.1. 대조를 매개체로 쓰는 타당성

속담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훈적 기능으로 쓰인다. 대조를 통해 그러한 교훈을 강조한다. 다음과 같은 속담에서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1)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

(1)의 의미는 사람은 어떻든지 부지런하여야 복 받고 살 수 있다는 말이다.³⁾ 위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은 [거지]와 [더운 밥]이다.

또한 대조를 통해서 '밥'에 대한 의미적 해석을 더욱 더 뚜렷이 할 수 있다. (1)과 같은 예문에서는 '밥'이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밥'이 다른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2) 경기밥 먹고 충청도 구실 한다.⁴⁾

(2)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을 하는 싱거운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속

3) 속담의 해석은 원영섭 (1995)에 따른다.

4) 충청도는 충청도의 '청주'와 '홍주'의 첫글자를 각각 따서 부르는 말로서 곧 '충청도'를 이른다.

담에서는 [경기밥]과 [청홍도]가 대조를 이루며, 여기에서 ‘밥’은 구실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음의 예문에서 ‘밥’의 다른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다.

- (3) ㄱ.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
- ㄴ. 싸전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

(3ㄱ)은 기본이 되는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고추장]과 [밥]이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밥’은 기본적인 것이 된다. (3ㄴ)은 성질이 몹시 급하다는 말로 [싸전]과 [밥]이 대조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한 개인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속담은 대조로 분석하고 설명되어 질 수 있으나 대조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관계로 분석, 설명하였다. 대조를 이가 (binary value)로 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관계라 봄이 더 타당하므로 관계로 설명하기로 한다.

- (4) 고운일 하면 고운밥 먹는다.

(4)에서 [고운일]과 [고운밥]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관계로 보고자 한다. (4)는 무슨 일이나 인과의 법칙이 있어서 하기에 달려 어진 일을 하면 좋은 대가를, 모진 일을 하면 나쁜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다.

3.2. 자료

대조는 전반적인 속담에 나타나지만 특히 두드러진 경우는 등위구조를 이루는 경우이다. 등위구조의 종류로는 4가지로 구분된다. 조건문, 종속문, 등위문, 비교문 등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5) ㄱ.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밥을 얻어먹는다. (조건문: 10개)
- ㄴ. 싸전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 (종속문: 17개)
- ㄷ. 시집 밥은 살이 찌고 친정 밥은 뼈살이 썬다. (등위문: 37개)
- ㄹ. 돼지 밥을 잇는 것이 네 웃을 대기보다 낫다. (비교문: 4개)

163개의 자료 중 68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등위문이었다.

4. 분석

분석 방법은 대조를 이루는 형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겠다. 네 가지 대조쌍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단일 형식⁵⁾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 두 번째는 복합 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 세 번째 복합 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밥’을 살펴 보겠다.

4.1. 단일 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

단일 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⁶⁾

- (6) ㄱ.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
- ㄴ. [밥]은 굵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

5) 신현숙 (1997)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일 형식, 복합 형식, 대상물 등이다.

6) 대조를 이루는 것은 []로 표시하였다.

- ㉔. [밥]은 열 곳에 가 먹어도 [잠]은 한 곳에서 자랬다.
- ㉕. [밥]을 치면 [떡]이 되고, [사람]을 치면 [도둑]이 된다.
- ㉖.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밥]은 바빠서 못 먹고
- ㉗.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른다.
- ㉘. [죽]이 되는 [밥]이 되는
- ㉙. [책력] 보아가며 [밥]먹는다.⁷⁾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에는 고추장, 숙, 잠, 떡, 죽, 책력 등이 있다. (6㉔)에서는 고추장이 부차적인 것으로 밥이 주된 것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6㉕)에서는 밥과 숙이 대조를 이루어 비록 밥을 끓이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밥을 전체적인 먹거리에 비교했다.⁸⁾ (6㉖)도 마찬가지로 ‘밥’은 전체적인 먹거리를 대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의미는 사람은 거처가 일정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6㉗)과 (6㉘)은 운율과 소리에 중점을 둔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6㉗)의 의미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아 넣을 때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치다’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6㉘)에서는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밥은 바빠서 못 먹고에서처럼, ‘죽’과 ‘죽어도’의 소리를 ‘밥’과 ‘바빠서’의 소리를 닮게 해서 속담을 만든 것이다. 이 속담의 의미는 술생각이 난다는 뜻이다. (6㉙)의 의미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모른다는 뜻이고 (6㉘)은 일이 어떻게 되든지, 좌우간의 뜻이다. ‘죽’이나 ‘밥’의 실제적인 대상물을 취하여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다. 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죽’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6㉙)의 의미는 밥을 매일 먹을 수가 없어 길일만을 택하여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가난하여 끼니를 자주 거른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책력]과 [밥]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밥’은 일상적으로 매일 일정한 때에 먹는 것이지만 ‘책력’에 나타난 시기와 날은 매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속담은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요즘 사람들은 책력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밥이 없어서 굶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속담은 사라져 가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

4.2. 복합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

복합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을 지닌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7) ㉚.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밥]을 얻어먹는다.
- ㉛. [고양밥] 먹고 [양주 구실] 한다.
- ㉜. [남의 밥]보고 [시래깃국] 끓인다.
- ㉝. [늦은 밥] 먹고 [파장] 간다.
- ㉞. [눈칫밥]을 먹고 [바늘방석]에 앉다.
- ㉟. [더운밥] 먹고 [식은 소리] 한다.
- ㊱. [비싼 밥] 먹고 [험한 걱정] 한다.

7) 책력이란 지구와 태양, 달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년동안에 달, 해의 뜨고 지는 일, 월식, 일식, 절기 및 그 밖의 다른 기상학상의 변동 등을 낱을 좇아 적은 책이다.

8) ‘밥’은 실제로 우리가 빵이나 국수를 먹더라도 ‘밥’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먹거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밥’을 먹지 않으면 끼니가 제대로 된 것같지 않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밥’과 ‘끼니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의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햄버거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밥’이 우리 문화에 이전이나 지금만큼이나 많은 영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9) 속담은 언어이므로 살아 움직인다. 비록 속담이 선진들의 지혜를 모아 굳어진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이라 하여도 그 쓰임이 적거나 쓰이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러나 아예 관용구처럼 굳어져 버린 죽과 밥의 대조는 아직도 계속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문화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의 빈번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익은 밥] 먹고 [선소리] 한다.

이 속담에는 대조가 아주 두드러진다. 위에서 표시한 것처럼 ‘-밥’과 대조를 이루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7ㄱ)에서는 [거지]와 [더운밥]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7ㄴ)에서는 [고양밥]과 [양주 구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 (7ㄷ, ㄸ, ㄹ)이 있다. 이들은 각각 [더운밥]과 [식은 소리], [비싼 밥], [혈한 걱정], [익은 밥], [선소리] 등을 대조해 쓸데없이 실없는 싱거운 소리를 하는 것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싱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핀잔주어 하는 말이다. (7ㄷ)은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을 가지고 공연히 미리부터 서둘러 좋아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남의 것을 턱없이 바란다는 의미이다. (7ㄸ)은 [눈칫밥]과 [바늘방석]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의미는 몹시 송구스러운 처지에 이르러 어찌할 바를 몰라함을 보고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눈칫밥]과 [바늘방석]이 대조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서로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속담을 설명하기 위해 ‘대조’이외에 ‘관계’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4.3. 복합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밥’

복합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밥’은 두 번째 범주인 복합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물에 속할 수 있지만 그 수가 많으므로 따로 분류하였다. 그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8) ㄱ. 시골 사람은 굶어도 [보리밥]을 굶지만 도시 사람은 굶어도 [이밥]을 굶는다.
ㄴ. [시집밥]은 살이 찌고 [친정 밥]은 뼈살이 쪼든다.
ㄷ. [영감밥]은 누워먹고, [아들밥]은 앉아서 먹고, [딸밥]은 서서 먹는다.
ㄹ. [영감밥]은 발뒤꿈치로 짹짹 씹고 [총각밥]은 송글송글 담는다.

이 속담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와 사상을 엿볼 수 있다. (8ㄱ)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시골보다는 도시를 선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시골사람]과 [도시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보리밥]과 [이밥]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즘은 건강식을 해서 [보리밥]을 천시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부의 상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속담은 시골보다 도시가 좋다는 관점에서 농촌을 천시하여 이르는 말이다. (8ㄴ)은 [시집밥]과 [친정밥]을 대조해 놓았다. 이 속담은 시집살이하느라 친정에서 살기가 편하고 좋다는 의미이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집살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8ㄷ)과 (8ㄹ)은 [영감밥]과 [그외의 다른밥]을 대조하고 있다. (8ㄷ)은 남편 덕에 먹고사는 것이 가정 편하며, 아들 부양을 받는 것도 전될만하나 딸의 집에서 붙어먹는 것은 전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속담 또한 우리나라 문화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노후에 아들 집에 사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이 더욱더 득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8ㄹ)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가장 깊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8ㄷ)과 (8ㄹ)의 속담에서 영감은 늙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말한다.

5. 분석 결과

Lakoff의 가정에 따라 ‘밥’과 관련되는 것을 은유로 본다. 위에서 우리는 ‘밥’에 관련되는 속담을 그 형식과 관련하여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대조를 통해서 ‘밥’의 의미해석을 더 변별적으로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밥’은 아래의 몇 가지로 구별된다.

- (9) ㄱ. ‘밥’은 구체적인 먹는 대상물이다.

- ㄴ. '밥'은 역할이나 구실을 나타낸다.
- ㄷ. '밥'은 주된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것에서 종합할 수 있는 Lakoff식 은유해석은 다음과 같다.

(10) '밥'은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¹⁰⁾

단일형식 '밥'과 주로 대조를 이루는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 '죽'이다. '죽'은 부정적인 의미로 '밥'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음의 예에서도 두드러진다.

(11) [밥]이 [약]보다 낫다.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건강에는 밥을 잘 먹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복합형식 '-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2) '밥'을 수식하고 있는 것은 '더운,' '비싼,' '익은' 등이나 그 대상을 수식하고 있는 것은 '식은,' '헐한,' '선'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밥'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일형식 '-밥'에서 얻은 결론과 같다. 그러나 밥이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13) 밥은 굶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

즉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딱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없지만 '밥'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지 않는 '밥'과 관련된 속담은 잘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먹고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현대와 미래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속담이 더 많이 대두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복합형식 '-밥'과 대조되는 '-밥'이다. 여기에서는 '밥'에 대한 어휘적 의미보다는 우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밥보다는 이밥이 더 좋은 것이고 아들밥이나 딸밥보다는 영감밥이 더 좋은 것이고, 총각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밥'에 대한 어휘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4) ㄱ. '밥'이 구체적인 먹는 대상물이다.

- ㄴ. '밥'은 생활의 터전 또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 ㄷ. '밥'으로 개인적인 관심이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밥'과 관련된 속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밥'이 단일형식이든 복합형식이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든 기본 은유는 '밥'은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9)와 (14)에 요약되어 있듯이 '밥'은 구체적인 먹는 대상물이 되며, 그것의 의미는 역할이나,

10)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별한 논문은 Charteris-Black (1995)가 있으며, 그는 침묵에 관해서 그 침묵이 언어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언어 비교를 한 논문에는 Lee (1996)가 있다. Lee는 영어와 한국어의 은유를 비교하였고 Lakoff (1980)의 분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것, 개인적인 관심이나, 사랑까지도 나타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6. 전망

의식주가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된다. 그 중 하나가 식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식생활의 근본을 이룬 것이 밥이었다. 따라서 밥과 관련된 속담이 많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속담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함쳐져 있고 우리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도구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추구하지 못한 분석을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그 틀이 되는 것은 화행이론이다.¹¹⁾ 화행이론의 매력은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속담의 분석은 역동적인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보통 속담을 사용하는 화자는 청자보다 우위에 위치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쉽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로 위아래가 나누어지므로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속담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¹²⁾ 이것은 외국어의 경우와는 다른 현상이므로 다른 언어와의 비교 연구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문화적인 차이도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담은 Charteris-Black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언어 보편적인 요소가 강하다. 모든 사람이 속담을 읽고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밥'과 관련된 속담은 한국인의 독특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을 더욱 더 잘 보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Lakoff (1980)과 Langacker (1995)의 틀 내에서 분석한 좀 더 자세한 이론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Lakoff에서는 어휘분석에 있어서 철저하게 은유적인 접근을 사용하고 있고 그는 극단적인 주체주의 (subjectism)과 극단적인 객관주의 (objectism)을 배격하고 있다. 극단적인 주체주의는 밥이라는 어휘가 여러 개가 따로 독립적으로 사전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주의는 하나의 밥의 원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확장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주의의 잘못된 밥의 여러 가지 어휘 의미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객관주의는 완전히 독립 분리된 상반적인 의미를 억지 연결시키려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Lakoff는 이러한 장애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매체가 은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것은 옳은 가를 입증하는 것은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언어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에서는 '밥'과 관련된 등위 구조에 한정에서 살펴보았으나 전체 자료를 좀 더 큰 안목에서 살펴보아 등위 구조에서 성취한 일반화를 적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등위 구조에서 사용된 '대조'라는 도구가 전체 속담에서 어떻게 쓰이는 가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신현숙. 1995. '웃'의 형식과 의미 확장. 말 제 20집.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신현숙. 1996. '밥'의 형식과 의미 확장. 원고.
원영섭. 1995. 우리속담사전. 세창출판사.
Brown, P. and S.C. Levinson. 1978.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UP.
Charters-Black, Jonathan. 1995. Still Waters Run Deep - Proverbs about Speech and Silence:

11) 화행이론은 Speech Act Theory로 Searl 등에 의해 연구된 것이다.

12) 앞에서 언급했듯이 Brown & Levinson의 분석에서는 속담이 공손의 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속담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De Proverbio: An Electric Journal of International Proverb Studies*. Volume 1. Number 2.

Collis, Harry. 1996. *101 American English Proverbs*. Passport Books.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and Morgan *Syntax and Semantics*. Academic Press: London.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onald, W. 1995.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Cognitive Grammar*. LSA Summer Institute: Handouts.

Lee, Sangdoon Peter. 1996. *Comparison of Metaphorical Concepts: in Korean and the American English*. manuscript.